



글로벌 투자전략-선진국  
Analyst 황수욱  
02. 6454-4896  
soowook.hwang@meritz.co.kr



## 미국 시장 위치 점검

4월 25일 기준 S&P500 지수는 4월 8일 저점 대비 10.9% 상승하며 5,500pt 회복. S&P500은 2월 19일 고점 이후 -18.9%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의 절반을 되돌린 수준, 지수는 앞으로 10% 추가 상승하면 전고점을 회복하게 됨

미국, 중국 말에 의해 변하는 관세 정책 기대, 달러 표시 자산 의구심 등 우려가 아직 남아있지만 시장은 4월 중 단기 저점은 통과했다는 생각. 전체 낙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린 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수 반응이었음

3월부터 시장 반등시 낙폭과대 기술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 중. 단기적으로는 AI H/W의 저평가와 함께 급락했던 전력 인프라 관련주 선호 의견을 계속 제시해왔고 기존 가지고 있던 중장기 전략으로는 AI H/W에서 AI S/W로의 전환을 이야기해왔음. 제시하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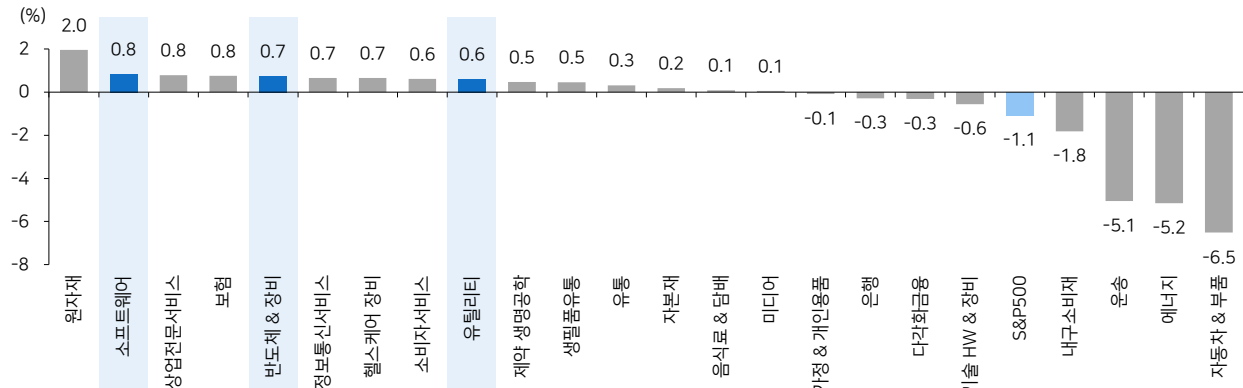
시장이 다시 우상향한다고 본다면, 실적 시즌은 시장이 반등할 때 승자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시기일 것. 특히 이번 실적 시즌은 관세 영향을 감안한 기업들의 실적 가이드라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

4/2 관세 부과 이후 S&P500 12MF EPS 추정치는 1% 이상 하향 중. 다만 업종별로 보면 IT 소프트웨어, 반도체, 유틸리티 등 기존에 좋게 보던 섹터는 오히려 상향되었으며, 금 가격 상승 때문에 오른 원자재 업종을 제외하면 최상위 수준

주가도 마찬가지. 기존 선호했던 주식들의 주가 반응은 대부분 시장 수익률 상회. M7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메타는 시장을 언더퍼폼한 반면, 엔비디아, 테슬라는 아웃퍼폼했음. 실적발표를 한 주식의 상승폭은 더 두드러졌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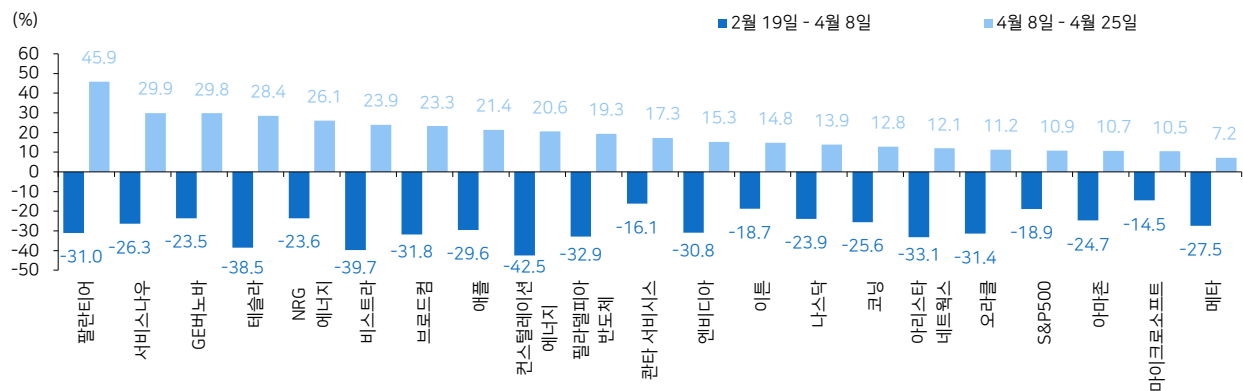
주도성장 산업의 여전한 성장 추세, 관세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유발하는 역설적인 기회(매크로 불확실성 대응 방안으로 기업들의 AI 도입 가속, 관세 정책에 따른 공급망 재편/중복 투자로 전력 수요 증가)를 계속 고려할 필요

그림1 4월 2일 관세 부과 이후 S&amp;P500 GICS 2레벨 기준 업종별 12MF 선행 EPS 추정치 변화율(4월 25일 기준)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미국 시장 낙폭과대 주요 종목들의 고점 이후 하락 구간 수익률, 저점 이후 반등 구간 수익률 비교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